



“APSF는 아시아역내 물류합리화의 주역”



(사) 한국물류협회
회장 서 병 루

지난 7월 4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제3회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이 APSF의 2대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의 파렛트 표준화를 통한 물류발전을 주도하는 실직적인 리더가 되었다.

본 기사는 지난 7월 15일자 물류신문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서병륜 회장 취임사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이 아시아 역내 물류표준화를 이끌어가는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APSF)의 2대 회장에 취임했다.

서병륜 회장은 “개별 국가 차원을 뛰어넘은 국제적 물류표준화 기구의 회장으로서는, 선임 회장이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APSF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APSF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3개국의 공동작품이다. 서 회장은 “그동안 아시아역내 물류표준화와 일관파렛트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한-중-일 3개국이 사업의 범위를 동남아를 포함,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시킨다는 열망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구 설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나라 물류인들의 열정이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물류업계의 기대는 크다.

서병륜 회장에 따르면 아시아의 역내 물류표준화 작업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반세기전 물류표준화와 표준 물류기기 공동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뤄 역내 물류표준화를 이뤄낸 EU와 비교하자면 늦어도 보통 늦은 것이 아니다.

서병륜 회장은 “EU의 경우 반세기 전인 1950년대 초 EEC(유럽경제공동체)가 결성되면서 물류표준화와 표준물류기기 공동이용에 대해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세계경제와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물류인으로써 자존심을 가지고 아시아 공동물류 시스템을 완성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아시아 역내에서의 물류공동화와 물류표준화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워낙 역내 국가간 경제수준과 물류표준화 수준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서 회장은 “그러나 열정으로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역내 물류표준화와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 각국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APSF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경제대국으로, 세계 최대 물류수요국가인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물류표준을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했고, 한-중-일 정부도 역내 파렛트 표준규격화를 함께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병륜 회장은 “중국이 ISO의 아시아태평양 표준파렛트로 제정한 T-11형(1,100mm × 1,100mm) 등 국제 표준파렛트를 자국 표준으로 채택,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는 지난 3년간의 APSF의 활동에 이어 최대 성과라고 평가한다.

이번 중국의 국가표준 채택은 이미 T-11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최초다. 특히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국의 선택은 아시아 물류공동화 추진에 있어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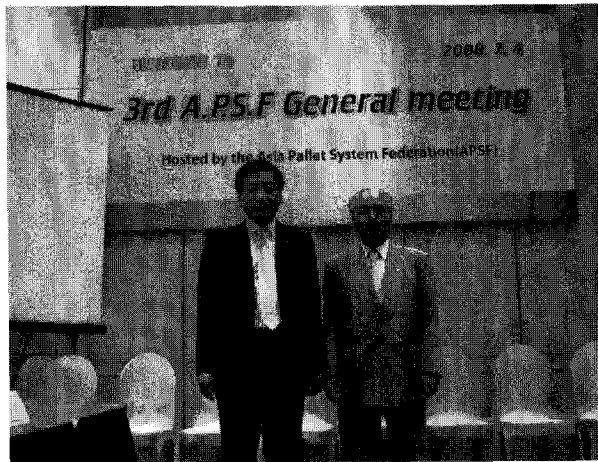
서병륜 회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3개국 정부가 역내 파렛트 표준규격화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데 주목하고 있다.

서병륜 회장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3개국 장관이 APSF와 같은 조직을 각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를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화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해석한다.

서병륜 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PCE(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역내 물류표준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력이 하나의 아젠다로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병륜 회장은 “중국과 인도, 동남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과 FTA의 확산 등으로 역내 교역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물류합리화가 절대적인 만큼, 이 부분에서 APSF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APSF가 아시아역내 물류합리화의 주역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서병륜 회장은 APSF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닛로드 시스템을 아시아 전역에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대 APSF 서병륜 회장과 APSF 오카다카즈오 명예회장(좌측부터)